

## August Konkel 박사, 역대기, 세션 6, 이스라엘 국가

© 2024 거스 콘켈(Gus Konkel)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역대기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아우구스트 쿤켈 박사(Dr. August Kunkel)입니다.  
이것은 세션 6,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백성의 관점에서 묘사한 역대기 기사를 살펴보았는데,  
그는 지금까지 유다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는 레위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제 그는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역에 초점을 맞춰 우리를 그의 시대로 데려가서  
왜 이러한 관계가 그의 시대에 그토록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사실,  
모든 역사에서 우리는 사람과 그들의 관계에 대한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계보라고 부를 수 있는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과거의 관계에 대해  
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현재의 관계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아마도  
우리는 이것을 왕족의 왕족이나 그런 종류의 왕족에게서 더 명백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누가 어떤 직위를 맡았는지 알아야 하는 사회의  
모든 종류의 요소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 무엇을 했는지,  
그들이 시의 시장이었는지, 여기 캐나다의 한 지방의 총리였는지, 아니면 미국의  
한 주의 주지사였는지.

이 모든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고대의 이러한 관계는 역대기 작가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고대 역사에는 모두 이러한 유형의 족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족보는 현재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의 시대에는 누가 레위인인지, 유다 지파와 다윗 자손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매우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기자에게는 온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이다. 그것은 야곱의 모든 지파이며,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의 족보의 마지막 부분인 유다와 레위인에 대한 보완인

이 다음 부분에서, 역대기 기자가 단호하게 선언하는 것은 열 지파가 없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부족.

그것은 완전히 날조된 역사 신화이다.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길을 잃지 않았으며, 이스라엘 전체에 관해 이야기하려면 이스라엘 전체가 누구였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 다른 지파들이 중요하고 온 이스라엘의 일부이고 그들이 여기에 있고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고 또 여기 예루살렘에 있으며,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들리더라도 실례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내가 하는 일이야.

그러나 나는 북부 부족들이 722년에 사르곤 2세나 살만에셀 5세에 의해 추방되면 어떻게 해서든 흩어지고 멸망했다는 생각을 자주 접했습니다. 역대기 작가의 역사, 그의 사고방식, 그의 기록에 이보다 더 반대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록으로 돌아가서 잇사갈과 베냐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지도를 기억하신다면 잇사갈과 베냐민 지파는 지금 요단강 서쪽, 갈릴리 바다 남쪽에 있는 지파들입니다. 사실 베냐민은 예루살렘에 인접한 지파인데,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그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베냐민은 매우 중요한 지파였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우면서 한 일은 본질적으로 전쟁을 벌이던 두 지파의 세력을 통합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고, 베냐민의 경계와 유다의 경계는 예루살렘 성을 관통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도에는 북쪽과 남쪽이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베냐민과 잇사갈의 수효를 엄청나게 알려준다. 잇사갈은 그들의 명성 때문에 갈릴리 바다 바로 북쪽에 있는 지파이다.

역대기 기자에게 이 엄청난 수의 부족은 언제나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하나님의 군대임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군대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런 다음 역대기 기자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다른 지파들로 이동합니다. 그분은 이미 요단강 동편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를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는 단, 납달리, 스불론, 므낫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실제로 이러한 이름을 모두 찾을 수 없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스불론을 언급하지 않으며, 왜 그가 스불론을 언급하지 않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의 기록에 나온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스불론은 거기에 없습니다. 단과 납달리는 함께 나열되어 있고 둘 다 한 어머니의 아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암시적으로 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관련이 있는 종족이고, 둘 다 함께 모여서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7절부터 19절까지에 므낫세의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앞서 살펴보았듯이 므낫세는 요단강 서편과 동편에 속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의 일부인 양쪽에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탁월하고 선두적인 지파로 기억됩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라는 사실이 역대기 기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약간의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족장들에게로 돌아가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둘 다 이집트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 땅에 있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선형 족보, 즉 이스라엘 땅에 존재했던 조상들의 우두머리들입니다. 그리고 두 형제가 살해되는 급습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이어지는 두 번째 선형 계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에브라임이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에 그곳에 있었다는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그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랍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지만 역대기 기자는 여호수아의 후손인

에브라임이 그가 이전에 언급한 에브라임과 동일하다고 말하는 진술을 실제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집트. 이 공격대 계정은 전체 계정을 방해했습니다.

우리를 여호수아까지 이어지는 두 번째 족보에서 우리는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즉 족장 에브라임이었으며 여호수아의 실제 후손이었는지에 대한 연관성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점에서 우리는 연대기 작가의 모호함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의 선두 지파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족장과 직접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아셀 지파에 이르게 됩니다. 아셀 지파는 레바논 땅과 매우 가깝습니다. 그곳은 레바논 나라 바로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변두리, 일종의 가장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므낫세 위에 있고 납달리 서쪽에 있습니다. 저기 북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Asher의 일반적인 전통적인 장소입니다. 이제 연대기의 역사에 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역사서에서 알고 있듯이 그것은 Asher입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아셀도 남부에 더 많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의 군사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오게 된 곳이 바로 베냐민 가족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에 도달하는 곳이고 민병대가 더 이른 시점에 작전했던 방식에 도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베냐민 가족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루살렘에 주둔한 민병대입니다.

그리고 기브온에 주둔한 민병대가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민병대는 에훗 자손과 샤아라임 자손의 민병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마소라 본문은 이 시점에서 약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두 번역 모두 역대기의 다른 버전을 따르는 방향을 취하지 않는다는 점은 나를 실망 시킵니다. 즉, 4절에 보면 에훗의 민병대와 사아라임의 민병대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기브온에 있는 민병대로 갑니다.

때가 되면 베냐민의 영토는 실제로 유다의 영토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융합이었죠. 그리하여 에브라임은 유다와 베냐민 영토의 북쪽에 있었습니다.

사울 가문은 사울 시대까지의 후손들을 어느 정도 자세히 알려주는 이 계보에서 유래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그의 결론을 가져다 줍니다.

이 두 구절은 역대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9장 1절 상반절은 이스라엘 전체가 등록되었다고 말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스라엘이 에훗에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등록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책에 담았습니다.

이것이 2장 1절과 2절의 결론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예후드 (Yehud) 주에 있던 페르시아 제국 말기의 시대로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등록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말하고 싶은 두 번째 요점은 연속성이다. 여기 2절의 번역에 관해 약간의 질문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리손(Rish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제 이 단어는 특정 의미 범위와 유연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절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때때로 머리인 것 또는 원리인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처음에 있는 것, 처음에 있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대기는 연속성을 강조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족들은 예루살렘에

속한 가족들이었으며 자기들의 재산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의 주요 거주자들이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재산이 누구인지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역대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지금 이 시점의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변함없이 이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예훗 에 있는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런데 그 중심에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과 그들의 모든 직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은 레위인의 큰 부분은 안전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원에는 귀중품이 많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고 싶어하거나 아마도 사원이 대표하는 신성하고 신성한 전제를 위반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지기는 레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보안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연대기 작성자는 자신의 공동체를 설명합니다.

그 중심에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성직자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주위에는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문지기들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고, 그다음에는 온 이스라엘의 총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이야기하여 이것이 야훼의 나라임을 참되고 완전하게 이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역대기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아우구스트 쿤켈 박사(Dr. August Kunkel)입니다. 이것은 세션 6, 이스라엘 국가입니다.